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여

조선사람은 조선식으로 살아야 한다

주체37(1948)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남조선에서 공화국으로 넘어와 림시로 려관에서 생활하고있던 리극로선생의 가족을 찾아주시였다.

너무도 황송하여 큰절을 올리는 리극로의 부인을 만류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극로선생의 가족이 38°선을 무사히 넘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오늘에야 시간을 냈다고 하시며 려관에서 생활하기 불편하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온 가족이 함께 살게 되니 더없이 행복하다는 부인의 대답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주로 외국인들을 취급하는 려관에서 아이들이 불편해하지 않는가고 거듭 물어주시였다.

아이들이 서양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아무리 외국인들을 대상한다고 하여도 우리 나라에서 운영하는 려관에서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서양음식을 주는것은 잘못되였다고 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조선사람은 빵, 런취보다 밥이나 국, 김치, 고추장이 어릴적부터 몸에 밴 음식이여서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말하자면 조선사람에게는 조선음식이 구미에 맞고 침대보다 따스한 온돌방이 더 좋습니다. 자기것을 무시하고 남의것만 다 좋게 생각하면 나중에는 민족성까지 저버릴수 있습니다. 조선사람은 조선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실 오랜 선비가정에서 자란 리극로선생의 부인은 공산주의자들의 생활방식에 대한 반동들의 악선전을 들을 때마다 은근히 걱정을 하였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처럼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시여 그의 마음속우려를 깨끗이 가셔주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격정에 넘쳐있는 그에게 오늘 저녁부터 조선음식을 보장해드리도록 하겠다고, 그리고 집은 인츰 해결해드리겠다고 하시며 애로되는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라고 이르시였다.

《장군님의 품에 안겨 모든 시름이 없어졌는데 이제 무슨 불편이 있겠습니까. 장군님께서 저희 집때문에 마음을 쓰시는것이 정말 죄스럽기만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인의 말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온 가족이 건강하여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고 다정히 이르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지금까지 정치활동을 하는 남편의 뒤바라지를 하며 제노라는 숱한 정치가들을 보아온 그는 세상에 다시없을 절세의 위인을 뵈옵고 받아안은 충격이 하도 커서 오래동안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본사기자 림 광 훈

온 겨레의 마음이 달려가는 민족의 성산

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조선사람이라면 그가 어디에 살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달려가는 곳이 있다. 다름아닌 민족의 성산 백두산이다.

오늘도 백두대지의 곳곳마다에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하기에 백두산하면 제일 먼저 백두광야의 눈보라를 헤치시며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어버이수령님의 만고혈전사가 떠오르고 흰눈덮인 백두산밀영의 추녀낮은 귀틀집에서 탄생하시여 항일의 총포성을 들으시며 성장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남다른 어린시절이 어려와 눈물짓는 우리 겨레이다.

지금도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은 백두산지구의 혁명전적지들을 답사하며 웅건장중하게 솟은 백두산정에도 올라 세상을 굽어보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으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 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인 백두의 혁명정신을 자신의 신념과 넋으로 삼고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결의도 다지군 한다.

조국을 방문하는 해외동포들도 백두산답사길에 오르군 한다.

언제인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재일조선인축하단이 조국을 방문하였을 때였다.

어느날 축하단성원들이 백두산에 올라가보고싶어한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은 대단히 춥고 눈도 많을것이라고, 하지만 조국을 알고 혁명을 하자면 백두산에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그들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들의 백두산 답사길을 위해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사랑의 길을 따라 얼마나 많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백두산에 올랐는가.

주체61(1972)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좌석에서 도쿄조선중고급학교의 한 학생은 《백두산에 올라서》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
오, 백두산! 백두산!
너는 김일성원수님께서
이끄신
항일의 빛나는 투쟁
그날의 위훈을 높이 세운
불멸의 기념비여라

아, 우리의 몸은
이제 백두산을 내려갈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한치도 백두산에서 내려
가지 않으리라

우리 이역땅에 살아도
마음은 언제나 백두산에
살며
백두산의 꿋꿋한 의지로
백두산의 슬기로운 기상으로
오직 이 한몸 수령님 위해
바치리라

이것이 어찌 한 재일동포의 심정만이랴.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잡고있는 백두산이다.

오늘 백두의 넋을 안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생을 바치려는 우리 겨레의 결심과 의지는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더욱더 백배해지고있다.

최 성 일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위인의 믿음속에 삶을 빛내인 재능있는 작가 (2)

집없는 천사—조령출의 이 슬맺힌 눈에도 조국해방의 밝은 빛이 비쳐들었다.

해방으로부터 오는 환희와 열정을 누를길 없던 그는 민족의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실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서울시민들, 아니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을 담아 장막희곡 《독립군》을 창작하였으며 작품은 연극으로 서울의 동양극장에서 대성황리에 상연되였다.

조령출선생

연극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의 중심에 모시고 녀성정치공작원을 적구로 파견하시여 국내반일민족해방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탁월한 령도자로서의 그이의 풍모를 훌륭히 창조하였다.

연극 《독립군》은 비록 얼마 공연되지 못했지만 8.15해방직후 남조선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무대우에 정중히 형상한 소중한 첫 작품이였다.

해방직후 작가가 창작한 작품은 연극 《독립군》외에 희곡 《론개》, 가극 《청사초롱》도 있다.

그러나 작가의 정열적인 창작활동은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것으로 하여 곡절을 겪게 되였다. 미군정이 실시되고 해방후 인민들의 총의에 의해 세워진 인민위원회들이 강제로 해산되였으며 일제가 만들었던 법조항들이 그대로 사람들의 어깨를 짓눌렀고 한동안 움츠러들었던 친일파들은 미제의 앞잡이가 되여 활개를 쳤다.

1947년에 들어서면서 남조선정세는 더욱 복잡하고 긴장해졌다. 미제는 친미주구인 리승만을 내세워 《단독정부》를 세우려 획책하면서 민주적인 단체와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조령출은 몹시 실망했다. 미국이 해방자가 옳긴 옳은가?

작품창작의 나날에 작가의 세계관에서는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작가는 자기의 붓을 점차 반미민주운동을 취급한 연극창작으로 돌렸다.

그러나 작가의 이러한 창작활동에 대하여 미제와 리승만도당이 팔짱을 끼고있을리 만무하였다. 탄압의 그물이 작가를 둘러싸고 조여들기 시작하였다.

조령출은 해방은 되였어도 이 세상은 여전히 자기의 진정한 집이 아니라는것, 결국 자신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집없는 천사라는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운명은 작가로 하여금 선택을 요구하고있었다.

운명의 선택!

조령출은 모대기였다.

(그렇다면 나의 선택은 어떻게 되여야 하는가.)

인민들이 사랑하는 가요를 창작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가극을 창작하는것은 조령출의 꿈이였고 리상이였다.

자기가 밤을 새우며 쓴 연극과 노래가 마음대로 불리워지지 못하는 세상, 왜놈대신 외세인 미제가 주인노릇을 하는 식민지 이 땅에 더는 있을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새 조선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퍼지는 진정한 보금자리—인민의 세상인 북으로 달리는 마음을 걷잡지 못하였다.

당시 북조선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제반 민주개혁들이 성과적으로 실시되고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여 새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었으며 주체37(1948)년 4월에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가 열리고 조선인민족의 통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정부수립에 대한 문제가 토의결정되였다.

바야흐로 남북조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승리적으로 진행되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이 내외에 엄숙히 선포될것이다.

작가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쳤다.

(아, 우리 민족의 참다운 구세주는 김일성장군님이시다!)

마침내 그는 심장이 가리키는 곳으로 운명의 키를 돌렸다. 가자, 북으로, 김일성장군님이 계시는 곳으로!

하여 작가는 1948년 8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 남조선대표로 선출되여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오게 되였다.

본사기자 라 국 본

동포들의 단합을 과시하는 계기로

얼마전 도쿄제3고급중학교에서 새 교사건설을 축하하는 감사야회가 진행되였다.

사실 2020년초에 새 교사가 준공되였지만 지금까지 세계를 휩쓰는 악성비루스감염증으로 하여 새 교사준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

학교건설위원회는 교사건설에 적극 협력해준 모든 동포들과 일본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들이 학교를 찾아와 보란듯이 일떠선 교사와 시설들을 자기 눈으로 보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감사야회를 조직하였다.

감사야회에는 총련일군들과 재학생들, 교직원, 학부형들과 졸업생들 그리고 일본시민들이 참가하였다.

개회선언으로 막을 올린 감사야회에서는 먼저 학교건설위원회 성원들이 소개되였으며 이어 참가자들의 발언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교사가 준공될 때까지의 잊을수 없는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총련조직과 동포들의 아낌없는 지성과 협력에 의해 오늘과 같은 번듯한 교사가 일떠선데 대해 긍지높이 말하였다.

또한 앞으로 선대들이 물려준 동포사랑,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정신을 20대, 30대의 학부형들을 비롯한 후대들이 계승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자신들의 결의를 다지였다.

이어 재학생들이 준비한 기념공연과 올해 입학한 1학년생들과 학부형들에 대한 소개, 이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소개, 도쿄조선가무단이 출연하는 공연 등이 펼쳐졌다.

번듯한 새 교사에서 마음껏 공부하고있는 학생들의 모습은 참가자들에게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 기쁨을 안겨주었다. 야회에 참가한 동포들은 저저마다 많지 못한 돈을 기부했을뿐인데 행사에 초대되고보니 감사의 마음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조선학교야말로 우리가 조선사람임을 알게 해주고 조선사람으로서의 인생길을 걷게 해준 요람이였다, 앞으로 더 많은 동포자녀들이 이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하였다.

수많은 재일동포들의 관심과 기대속에 진행된 감사야회는 민족교육사업의 중요성과 동포들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지배와 굴종, 범죄의 력사는 감출수 없다

치욕스러운 남조선일본 《협정》

—《제2의 을사5조약》—

1965년 6월 22일 일본의 도쿄에서는 온 겨레가 반대배격하는 굴욕적인 남조선일본 《협정》이 정식 조인되는 놀음이 벌어졌다.

박정희군사파쇼도당과 일본사이에 맺어진 남조선일본 《협정》은 남조선일본 《기본관계조약》, 《재산청구권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으로 이루어져있다.

남조선일본 《협정》에 따라 일본은 조선강점기간에 조선인민에게 끼친 막대한 인적 및 물적 손실을 박정희군사파쇼 《정권》에 《원조》와 《경제협력》이라는 간판밑에 몇푼의 돈을 주는것으로써 락착지어버렸다.

또한 지난날 우리 민족의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을 략탈해간 일제의 만행을 정당화하고 섬나라것들이 가져간 조선인민의 문화유산을 《개인소유》로 하는것을 《합법화》하였으며 재일조선공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짓밟는것을 《합법화》하였다.

하다면 남조선 각계가 《제2의 을사5조약》으로 배격한 이 《협정》이라는것은 어떻게 꾸며진것인가.

1951년 10월 도쿄에서는 남조선일본 《회담》이 열리였다.

미국의 각본에 따라 벌어진 이 《회담》은 1961년 5월에 박정희역도가 감행한 군사정변으로 그것이 중단되기까지의 10년동안에 5차례에 걸쳐 진행되였으나 별로 큰 진전이 없었다.

이에 골머리를 앓고있던 미국은 저들의 손때묻은 주구인 박정희역도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자 그를 계기로 범죄적인 남조선일본 《회담》을 빨리 결속짓도록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였다.

이에 따라 박정희역도는 군사정변을 감행한지 두달밖에 안되였던 1961년 7월에 벌린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가 지금까지 부자연한 상태를 계속해온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정부〉는 한일회담을 년내에 일괄해결할 방침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고 떠벌이고나서 그 실현에 발벗고나섰다.

그리하여 중단되였던 매국흥정판인 남조선일본 《회담》은 1961년 10월에 다시 열리게 되였다.

당시 일본은 1905년에 을사오적을 매수하여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던것처럼 박정희역도를 몇푼의 돈으로 더 단단히 틀어쥐고 다른 현안문제들도 저들의 요구대로 처리함으로써 침략적이고 예속적인 남조선일본 《협정》을 기어이 성사시키려 하였다.

이에 따라 남조선에 기여든 일본경제사절단과 일본독점재벌들은 박정희역도에게 저들의 음흉한 기도가 깔린 거액의 돈을 찔러주군 하였다.

섬나라것들의 사촉에 따라 박정희역도는 《제3공화국의 운명을 걸고라도 한일회담을 추진시키겠다.》고 하면서 1964년 《3월결속》, 《4월조인》, 《5월비준》이라는 일정까지 꾸미고 굴욕적인 협상에 더욱 악을 쓰며 매달렸다.

하지만 박정희역도의 이 매국일정은 분노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해 실현될수 없었다.

바빠맞은 박정희역도는 비상계엄령을 내려 남조선일본 《회담》을 반대하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최루탄과 총칼로 마구 탄압하는 한편 《한일회담 고지점령내각》이라고 불리운 《정일권내각》을 꾸며내고 매국 《협정》체결놀음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결국 1965년 2월 서울에서 남조선일본 《기본관계조약》이 가조인되고 그해 6월 일본에서 남조선일본 《협정》이 정식 조인되였다.

매국적인 남조선일본 《협정》은 이렇게 세상에 삐여져나오게 되였다.

침략적이고 예속적인 남조선일본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이 공공연히 남조선에 기여들게 되였으며 남조선미국일본의 《군사일체화》책동이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본사기자 박 철 남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는 《우끼시마마루》 폭침사건

섬나라 일본이 조선민족에게 끼친 무수한 죄악들가운데는 일제패망직후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려던 수천명의 조선사람들을 바다에 집단수장시킨 《우끼시마마루》 폭침사건도 있다.

1945년 8월 22일 일제는 혹가이도와 아오모리지방에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고향에 보내준다고 하면서 4 730t급해군수송선 《우끼시마마루》에 타게 한 다음 그 배를 섬나라의 최북단에 있는 아오모리현 오미나또군항에서 출항시키였다.

8월 24일 일제는 부산항을 향하여 가던 배를 갑자기 물을 싣는다는 구실로 마이즈루앞바다로 항로를 바꾸게 하였다.

17시 20분경 배가 마이즈루만안에 있는 도시마라는 작은 섬앞을 지나게 되였을때 기관실쪽에서 요란한 폭발이 일어나고 이어 배는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일제살인귀들이 조선사람들을 한꺼번에 물속에 빠뜨려 죽이려고 저들의 손으로 배를 폭파시켰던것이다.

이때 갑판우에 올라와있던 섬나라족속들은 폭발소리가 울리자 뽀트를 바다에 띄운다음 재빨리 도망쳐버렸다.

선실안에 있던 조선사람들은 아우성을 치면서 갑판우로 올라오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배밑창에 구멍이 뚫린 《우끼시마마루》와 함께 바다밑에 가라앉고말았다.

일제는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조선사람들을 마이즈루만 다이라에 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가라앉은 《우끼시마마루》를 1954년에 와서야 《고철》로 쓰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끌어올려 해체하였다.

그것은 저들이 저지른 학살만행의 범죄적증거물을 없애치우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오늘도 섬나라것들은 《우끼시마마루》 폭침사건을 《사고》로 묘사하면서 《배상을 추구하려는 그 어떤 움직임도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떠벌이고있다.

《우끼시마마루》 폭침사건은 섬나라족속들이야말로 조선민족말살에 미쳐날뛴 우리 민족의 천년숙적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끼시마마루》 폭침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78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피로 얼룩진 죄악의 력사를 미화분식하면서 파렴치한 력사외곡책동에 매달리고있는가 하면 우리 민족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저들의 섬이라고 생억지를 쓰고있다.

또한 군사대국화와 반공화국적대시책동에 광분하면서 재침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에 매여달릴수록 그것은 우리 겨레의 대일결산의지만을 더욱더 배가해줄뿐이다.

김 광 억

《우끼시마마루》 잔해